

'전주·완주 상생발전 마중물' 고향사랑 기부

우범기 전주시장·유희태 완주군수, 교차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상생협력 이어가

전주시장·완주군수의 교차 기부를 통하여 전주·완주 주민들에게 유대감을 조성하고 양 지자체 상생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을 동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18일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를 찾아 우 시장은 완주군에, 유 군수는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갔다.

양 단체장은 전주·완주 상생협력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우 시장은 완주군에 50만 원을, 유 군수는 전주시에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양 지자체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양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문화생활 공유 등을 위해 전주·완주 상생협력을 지난해 11월부터 이어가고 있다.

또 양 지자체는 매일 실무회의를 거쳐 양 지역 주민이 공유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18일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를 찾아 우 시장은 완주군에, 유 군수는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사업과 농업·관광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최아영 기자

도서관 문화협력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협력기로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특히 상생협력 관계인 전주와 완주가 힘을 모아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 시군의 기부 참여가 확산돼 지역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최아영 기자

'계묘년 복 많이 받기' 이벤트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 설 연휴기간 한옥마을서 추진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인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계묘년 복 많이 받기' 설 명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기전 광장에서 토끼 포토존 운영과 전주굿즈 증정 등 각종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 경기전 광장에 약2m 크기의 토끼가족 3마리 포토존을 설치한다. 야간에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 운영한다.

또 토끼탈인형 인종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휴 기간 중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와 경기전, 향교 등에서 11시, 13시, 15시, 17시를 전후해 30여분간 토끼탈인형이 출몰한다.

토끼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 후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인증하면 전주관광굿즈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토끼의 해를 맞아 재미있게 관광객



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계획했다"며 "명절 연휴기간 중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거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20여 년 묵인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속도'

역사도심 지구 규제 완화 추진·프랜차이즈 입점 허용키로

전주시는 20여 년 동안 묵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정을 위한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할 계획

이다.

이 지침은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상세한 내용을 지침에 담아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이에 시는 최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정주 여건 향상에 나선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병행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역사도심 지구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1월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후 개발규모와 건축물의 높이 등도 적극적으로

으로 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월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다"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촉진은 물론,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설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197곳 운영

전주시, 시민 진료 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

설 연휴 기간 중 전주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시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발생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197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약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완산구·덕진구 등 양 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제공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주변 병원과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 및 이용 가능 병상 수와 가까운 약국 등을 알려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또한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완산구, 깨끗하고 안전한 개방화장실 위한 점검 나서

전주를 방문하거나 오는 설명절 귀성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산구청은 관내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중심지로 마련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을 집중 점검 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닷새동안 개방화장실 이용관련해 1. 화장실 청결상태, 2. 편의용품 비치 여부, 3. 물레카메라 확인 점검 등을 점검해,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의 전주시 개방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점검 과정 속에 나타나는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개방화장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전주시 자랑 거리로 남게 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개방화장실 이용 시 내 집처럼 시설물을 아껴주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구 개방화장실 현황	도로명주소	개방시간
1 대우빌딩(근로당)	기린대로 213(서도동)	09:00-22:00
2 백송회관	팔달로 251(서도동)	06:00-20:00
3 백송회관	기린대로 177(서도동)	10:00-22:00
4 전주교 지방자선 성지	바라빛길 89(대성동)	09:00-18:00
5 한양교회	양지1길 16-12(삼천동1가)	08:00-24:00
6 동매초법 효친영	창송배기로 2-27(삼천동1가)	10:00-21:00
7 우륵연성 상가 C동	서서학동 977-1	06:00-24:00
8 지리산 빌딩	서산로 42(서도동)	09:00-22:00
9 한 발 빌딩	전주객사1길 52(타기동4가)	09:00-20:00
10 NC에너지 전주점	전주객사4길 24-47	10:30-21:00
11 메도빌드전주화장실	백제대로 238(중화동 2가)	06:00-24:00
12 한 발 빌딩	유전로 276(중화동2가)	06:00-24:00
13 병화동 문화정당	묘악로 4651-71(병화동1가)	09:00-22:00
14 동학골 가마솥 공방	묘악산자학길 290-17	06:00-24:00
15 동부시장	중평로 109(경원동3가)	08:00-22:00
16 한옥집	어진길 119(전동)	09:00-21:00
17 전주농협농남문지점	농남문2길 32(전동)	09:00-18:00
18 한옥집	태조로 51(전동)	09:00-18:00
19 전주대안신용협동조합	팔달로 129(전동)	09:00-17:00
20 매대방	경기전길 135(전동)	09:00-21:00
21 우석대 산학협력관	운행로 53(동남동3가)	10:00-18:00
22 전주초코파이제빙점	간남로 1(동남동 3가)	10:00-21:00
23 원리김영로 75(전동)	원리김영로 75(전동)	11:30-21:00
24 서부시장	효동2길 18(효자동1가)	08:00-20:00
25 정혜사	외물동 1길 36	06:00-17:00
26 대일빌딩	원자천변로5길 7(효자동1가)	09:00-20:00
27 비전대학 토틀가	전창로 205(효자동2가)	10:00-21:00
28 세노빌아파트(현명빌)	세노로 193(효자동2가)	10:00-18:00
29 서양빌딩	동산로245(효자동2가)	08:00-22:00
30 마야빌딩 죽발보양	전창로 502(효자동3가)	10:00-22:00

전주덕진소방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돌입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전주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지역민 안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전주덕진소방서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과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별경계근무에는 338명의 인력(소방대원 205, 의용소방대원 155, 사회복무요원 6)과 31대의 소방장비(펌프차 5, 화학차 2, 물탱크 1, 구급차 6, 구조

차(산악) 3, 기타 14)가 동원되며,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현장 출동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활동 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소방 장비 가동 상태를 100% 유지하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